

특허정보 서비스 인프라 구축한다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지역별 기술혁신 역량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지역별로 설치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각 지역의 종합적인 지식재산 지원 인프라로 집중 육성하기로 하였다. 지역민이 접근하기 쉬운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기존에 제공되던 특허출원상담 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더욱 고급화하여 특허등록 가능성 여부에 대한 특허정보 검색 및 특허기술 거래, 사업화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 등을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는 한편, 지역별 산업여건에 맞는 차별화되고 특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별 기술혁신 역량 강화와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키로 한 것. 지역지식재산센터는 '78년부터 지역민의 특허정보 열람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15개 상공회의소에 설치(지방특허열람소)한 것으로, 그간 지역민에 대한 특허정보서비스 제공, 지재산권 관련 종합민원 상담, 지재산 교육 및 설명회 등의 개최를 통해 지역에서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제고에 기여해왔다. 이번 혁신방안에 따르면, 지재산 민원상담 이의 특허정보

분석 및 활용 컨설팅을 통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재산 창출 지원과 특허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지재산 창출사업을 지역센터를 통해 원스톱으로 지원·제공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과 지역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산자부와 교육부 등 타부처 사업(지역혁신특성화시범사업, 누리사업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해당 사업의 지재산 창출 촉진에 기여하며, 지역 발명 유관기관 전문가를 포괄하는 '지역 지재산 지원단'을 구성하여 해당 지역의 지재산 창출을 위한 각종 자문 제공과 아이디어 발굴 및 지역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타 지역센터간의 경쟁체제 도입, 공익변리사 활용을 통한 무료 특허서비스 제공 등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향후 특허청은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담직원을 대상으로 각 센터의 역할 모델 및 업무수행 매뉴얼을 작성·배포하는 한편, 센터의 운영 혁신을 내실있게 실천하여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을 통한 국가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허청·산업은행 중소기업 적극 지원

특허청(청장 김종갑)과 산업은행(총재 유지창)은 우수 특허기술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활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능력과 기술력은 우수하나 담보력이 부족한 우수 특허보유 중소기업에 대해 특허권을 담보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년 상반기에 우수 특허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해 5백억원 규모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사업추진 성과에 따라 하반기에 같은 규모의 자금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년 자금 지원은 부동산 담보 위주의 금융 관행에서 탈피, 기술력을 근거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그간 부동산 등의 담보를 요구하는 금융관행 때문에 우수한 특허기술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수 특허기술이 국가경쟁력 제고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특허청과 산업은행은 지난 2월 맺은 '우수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업무협력약정'을 통해 우수 특허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우수 특허기술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특허청이 지원하고, 산업은행은 특허청으로부터 추천받은 우수 특허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특허 가치를 평가하여 사업성 및 성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금액의 50% 이내에서 특허담보 가액으로 인정하여 우선 금년 상반기 중 총 5백억원(시설 운영 자금 포함 총 1천억원)을 대출 지원하기로 하였다.



공기 정화에 전자파 차단까지... '그린 인테리어'



새싹이 돌아오는 봄이 오면 집안의 분위기도 한번 바꿔보고 싶어진다. 커튼, 가구 등으로 새롭게 실내 분위기를 바꿀 수도 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아 쉽지가 않은데 이때 간편하면서도 값싸게 실내를 변신시키는 것이 바로 '그린 인테리어'. 실내 공간에 따라 어울리는 화초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거실

넓은 공간을 감안하여 공기 정화 효과가 큰 식물이 좋다. 즉 잎이 많은 파키라, 행운목, 벤자민, 고무나무 등을 기본으로 하면서 밝은 분위기를 원한다면 겨울철에도 화려한 꽃을 피우는 게발 선인장이나 시클라멘 등의 식물을 곁들이도록. 거실은 특히 바닥뿐 아니라 장식장 위에서 아래로 늘어지는 식물을 배치하면 공기 정화 효과도 좋고 공간 활용도 더할 수 있다.

침실

잠자는 공간인 침실에는 너무 많은 화분을 놓지 않도록 한다. 녹색 식물 위주로 하고 작은 크기의 화분을 침대 머리맡이나 창가에 두도록. 건조한 환경의 아파트라면 수면 중 침실 습도 유지를 위해 하루에 1ℓ 정도의 물을 발산해 기습기 역할을 하는 아레카야자를 두면 좋다.

현관과 복도

현관과 복도는 대부분 복향에 위치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일조량이 부족하다. 따라서 내한성이 강한 필로덴드론, 산세베리아 등이 좋다. 그러나 햇빛 부족으로 시들거나 햇빛 방향으로 휠 수 있으므로 일정 기간 한번씩 위치를 바꿔주는 것이 좋다.

욕실

어둡고 좁은 공간이면서 온도가 높고 습기가 많아 식물 배치가 어려운 장소인

욕실은 많은 식물을 두는 것보다 수정 배하는 식물이나 초화 화분이 좋고, 습기를 많이 요구하는 달개비, 관음죽, 스킨답서스, 시서스 등이 알맞다. 특히 관음죽은 화장실의 암모니아 가스를 흡수하는 능력이 있다.

어린이방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로즈메리 같은 허브 류가 좋고, 손쉽게 키울 수 있는 구근류를 놓아주어 어린이가 직접 길러보게 하면 교육적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주방

음식을 만드는 주방이만큼 공기 정화와 냄새 제거는 필수다. 조리 중에 불완전 연소된 이산화황 등의 오염물질을 흡수하고 공기 정화 능력이 강한 벤자민과 고무나무, 스파티필럼 등이 적당하다. 또한 창가에는 은은한 향을 갖고 있는 율마를 놓아두면 주방의 음식 냄새도 제거되고 방향 효과도 얻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수도권 지역의 그린 인테리어 시장

- 서울 양재동 화훼 공관장 : 지하철 3호선 양재역에서 성남 방향(02-579-8100)
- 남서울 화훼 공관장 : 과천시 주암동 서울 경마공원 인근(02-502-6835)
- 구파발 화훼 단지 :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에서 북한산 방향(02-356-0663)
- 서서울 화훼 유통 : 광명시 제2경인고속도로 광명IC 인근(02-2614-9004)

Quality guaranteed

오뚜기마크는 한국표준협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국내 우수 제품 중에서 최고의 품질과 제품성이 인정되는 오뚜기 제품을만 부여되는 인증제도입니다.

카보나란 Charcoal(숯)+carbon(탄소)+나(我)의 합성어로 숯을 태운다. 즉, 탄소의 결정체인 '숯에 있는 수많은 효능이 사용하는 고객과 한몸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숯의 신비 - Carbona 카보나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무턱대고 굽지마십시오!

카보나는, 원적외선과 음이온이 발산되므로 건강에 좋습니다
 카보나는, 연기가 없고 냄새를 제거하므로 공기를 정화시킵니다
 카보나는, 고기맛을 좋게하고 사용후 불판을 쉽게 닦을 수 있습니다

여과작용 · 탈취작용 · 습도조절작용 · 해독작용 · 정화작용 · 원적외선 및 음이온 발산 · 열역순환

카보나는 천연 참숯을 원료로 만들었습니다

www.isdigital.co.kr

ISDigital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29-8호 TEL.(02)567-8080 FAX.(02)539-4600

기고문

'이동갈비' 상표, 나도 사용할 수 있을까?



장현숙
(특허청 심사4국 정보심사
담당관실 심사관)

얼마 전 대중매체를 통해 '어, 이동갈비 진짜인줄 알고 먹었는데 아니잖아!'라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갈비 맛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번 사건으로 '이동갈비' 상표를 불신하게 되었을 것이고 '이동'이라는 문자를 사용하는 갈비 유통업자들과 음식점 운영자들에게는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동갈비는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에 위치한 백운계곡 등 인근 주변의 수려한 경관 및 맑은 공기와 계곡의 깊은 물로 인해 찾는 관광객이 많아짐에 따라, 1980년대 초부터 갈비음식을 파는 집단이 형성되어 그 지역 명칭에 따라 붙여진 이름이다.

음식점마다 맛의 차이는 있지만 갈비뼈에 살이 붙은 채로 앞뒤로 번갈아 칼집을 넣어 살을 골게 편 뒤에 진간장에 참기름을 듬뿍 넣고 파, 마늘 등 갖은 양념을 해서 재웠다가 숯불에 굽는 조리법으로 수입고기를 섞거나 잡육을 깨매는 등의 속임수가 없어, '94년부터 주요 일간지에 기사들이 게재되면서 더욱 유명하게 되었고, 3백여개의 업체가 성업하게 되었다.

그럼 여기서 '이동갈비' 서비스표는 누군가에게 귀속된 상표인지 또는 누구나라도 사용 가능한 상태인지 살펴보겠다.

'99년 7월에 이동갈비(이동갈비)로 도안화하여 지정서비스업 구별 제42류(식당 체인업, 음식조리 대행업, 음식준비 조달업, 소갈비 요리전문점점 영업)로 출원되었다. 출원된 이동갈비(이동갈비)는 도안화가 문자인식력을 압도할 정도로 특별하지 못해 한글 '이동갈비'로 인식된다고 판단되었

다. '갈비'는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으므로 본 서비스표는 일반 수요자들에게 '이동'으로만 인식될 것인데 '이동'은 요식업 중 갈비 요리로 널리 알려진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을 표시하고 있으므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것으로 판단되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적용되어 거절결정 되었다.

이에 출원인은 2001년 1월 19일에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에서는 비록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동면과 그 인근지역에까지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동갈비'를 상호로 한 음식점들이 밀집되어 영업하여 왔고, '이동갈비 축제' 등으로 인하여 '이동갈비'를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 '이동지역에서 특수한 방법으로 조제된 갈비'로 직감됨으로, 이와 같이 널리 알려진 명칭을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고 타인의 동종 서비스와의 관계에서도 식별이 어려워, 본 서비스표는 특정서비스의 질이나 제조장소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라는 이유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된다 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원인은 다시 특허법원과 대법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지정서비스업의 상품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한 식별력 없는 서비스표라 하여 역시 원고의 청구는 2002년 2월 8일에 기각되었다.

따라서 현재 '이동갈비' 서비스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독점권은 행사할 수 없다. 즉, 상품의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되거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위와 같이 그 지역의 산지 물품을 강조하는 상표는

등록될 수 없는 것인가! 등록 가능하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도형을 특이하게 도안화하여 한글과 조화를 이루게 구성하면 된다.

여기서 '특이하게'라는 뜻은 동그라미나 세모, 네모 또는 별표와 같은 그런 보통의 도안이나 접시, 소 또는 갈비뼈 등의 도안도 그 분류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특이하다고 볼 수 없다. 또 색채를 부가하여 차별화를 시도한다 해도 보통의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또는 검정색 등은 차별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지지 않는다.

따라서 상품 생산지의 지명도 더불어 그 상품분류의 성질을 나타내는 보통의 도안이 아닌 특이한 도안과 조화를 구성한다면 등록 가능할 것이다.

숙명여자대학교 이학계열 물리학과 졸업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물리학과 졸업

1995. 12 ~ 1996. 10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공업연구사

1996. 10 ~ 2000. 1

특허청 심사2국 정밀기계심사담당관실

2000. 1 ~ 2001. 3

특허청 심사2국 심사조정과 IPC 분류 업무

2001. 3~현재

특허청 심사4국 정보심사담당관실 근무

특허행정혁신경진대회 표창장 수상, 특허행정유공 수상,

특허청 우수심사관 및 심사평가 우수심사관 선정, 심사사

레우수상 수상

한류 열풍 등 영향으로 일본인 상표출원 증가

지난 2004년 우리나라 특허청에 일본인의 상표출원이 크게 늘어나 2003년 대비 15% 증가한 8천8백72건으로 집계되었다. 이처럼 일본인의 상표출원이 크게 늘어난 것은 일본의 대한 투자가 2004년도에 22억 4천9백만불로 2003년도의 5억4천1백만불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2004년 일본에서 한류 열풍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 인식이 크게 호전되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분야별로는 과자, 식품, 음료분야에서 전년대비 48%로 가장 크게 증가 하였으며, 이어서 고무 및 플라스틱 재료분야 26%, 가구 및 주방용품 분야 23%, 기계분야 16%순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한국인은 일본에서 2000년 이후 매년 5백건 내외의 상표출원을 하고 있는데, 한류 붐을 잘 이용하여 이를 대일 수출증가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한국인의 일본에서 상표출원이 더욱 늘어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와 변리사 간 싸움 치열해질 듯

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재승/이하 변협)가 변호사들로만 구성된 변리사단체를 준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 단체가 설립되면 업무 역할분담 문제 등으로 대립 중인 변호사와 변리사 간 다툼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변호사들은 변리사 등록만 마치면 특허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이상희) 소속 변호사 수는 전체 변리사 수의 40%를 넘는 수준. 변협은 이런 이유로 현재 변리사회와는 다른 별개 단체를 만들어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게 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그러나 변리사업계에서는 이같은 변협의 입장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 변리사는 '항상 분쟁의 소지가 있던 터에 변호사들이 이런 단체를 설립하는 것은 이익을 챙기기 위한 수순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변협은 이에 대해 '이번 단체 설립은 법률상 보장된 우리 권리를 다시 찾는 방법 중 하나'라며 '한편을 통한 변호사 특허교육으로 변호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다섯 가지 색깔 과일과 야채의 비밀은?

하루 5가지 색깔의 과일과 야채를 먹으면 건강 걱정에서 해방된다고 한다. 즉, 과일과 야채는 비슷한 색깔끼리 비슷한 영양소와 효과가 있으며 하루 5가지 색의 과일과 채소를 고루 섭취하면 건강해진다는 것.



붉은색 과일과 야채

토마토·딸기·수박 등 붉은 색을 띠고 있는 과일과 야채는 안토시아닌이나 리코펜을 함유하고 있는데 리코펜은 항암작용, 안토시아닌은 소염작용을 한다고 알려졌다.

노란색 과일과 야채

파인애플·감귤·오렌지·감·망고 등으로 암과 심장질환 예방 효과가 있는 베타카로틴이 들어있다.

초록색 과일과 야채

청포도·키위·배추·브로콜리·시금치 등으로 엽록소가 풍부해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며 피를 만들고 세포 재생을 도와 노화 예방에도 좋다. 또 교감 신경계에 작용, 신장과 간장의 기능을 돕고 공해 물질에 대한 해독 효과도 강하다.

파랑·보라색 과일과 야채

포도·블루베리 등 파랑·보라색 계열의 과일

과 야채는 시력 회복에 좋고, 원기 회복과 성기능 향상 등의 효과가 있다.

적포도주는 심장병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도 껍질의 플라보노이드는 노폐물이 혈관 벽에 달라붙지 못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

하얀색 과일과 야채

바나나·배·도라지·양파·무·마늘·생강·버섯 등으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심장병 예방 효과가 있다. 또한 체내 산화작용을 억제해 유해물질을 체외로 방출시키며 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준다.

이처럼 색깔에 따라 효과가 다른 과일과 야채는 되도록 선명한 것으로 고르며, 색깔 기준은 '먹을 수 있는 부분'으로 정한다.

예를 들면 사과는 빨간 껍질을 먹을 수 있으므로 빨강 계통으로, 수박은 초록색인 껍질을 먹지 않으므로 속 색깔인 빨강으로 분류된다.